

땅에서 얻는 정직한 출판기획,

현장성 없다면 좋은 책도 없다



인터뷰 · 전국귀농운동본부 출판기획실장 안철환

조선시대 실학의 산실인 안산 청문당을 지나 구불뚝한 산길을 얼마 내달리지 않았을 때, 바지런히 페이지를 하고 있는 안철환(43) 씨를 볼 수 있었다. 불편한 몸을 의지한 목발이 아니었다면 그저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깊게 눌러 쓴 모자, 남루하지만 단정한 차림, 연장을 다루는 능숙함… 출판기획자라는 매끈한 모습은 간 데 없고, 그가 명명한 '자연의 심부름꾼'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반 병 정도 남은 막걸리와 마늘 줄기를 뜯어 내놓은 그는 먼데 산을 보며 “좋지요?” 하고 소탈하게 웃었다.

“소나무 출판사에 적을 두고 있을 때 《ET할아버지와 두밀리 자연학교》를 기획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일깨워주는 ET할아버지 채규철 선생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뒤 귀농현장을 취재해 《희망의 밭을 일구는 사람들》을 내게 되었는데, 도시농업에 마음을 굳힌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판기획자로서 땅을 살리는 책을 내겠다는 생각도 그 시기에 가졌지요.”

땅은 그의 작은 농심(農心)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말농장 다섯 평을 사들여 처음 심은 조선배추는 실하게 자라주었고, 틈틈이 밭에 나와 소일하던 아내는 그보다 더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으로 이내 수리산 아래 두 마지기의 땅을 사들이는 모험을 감행했다. 땅심을 키우기 위해 천연퇴비를 모아 거름으로 주고 옷자란 풀을 베어 깔아두기를 삼 년, 땅은 기대이상의 옥토로 변해 그의 노고에 보답했다. 그러나 땅이 그에게 준 더 큰 보답이 있다면, 출판기획자로서 땅의 중요함을 알리는 책들에 더욱 성실히 복무케 한 것이다.

“귀농운동본부 출판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생태적 삶을 위한 귀농총서’를 기획했지만 반기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IMF 지원체제 이듬해였으니 출판사 모두가 곤궁했지요. 출판 외적인 일로 들녘출판사 이정원 사장을 만났는데, 귀농총서를 만들 것이라는 제 계획에 반색하셨지요. ‘그거 꼭 나와 같이 하는 거다’ 하고 말합니다.”

‘생태적 삶을 위한 귀농총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1998년 첫 권으로《생태농업을 위한 길잡이》가 나온 이후《신비한 밭에 서서》《자연을 꿈꾸는 뒷간》《내 손으로 하는 천연염색》《내 손으로 만드는 햄·소시지 베이컨》등 ‘생태적 삶을 위한 귀농총서’는 현재까지 모두 열세 권이 출간됐다. 이중《자연을 꿈꾸는 뒷간》《내 손으로 하는 천연염색》《주말농사 텃밭 가꾸기》는 지금까지도 독자たちの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다.

“순수 땅을 일구고 보니 땅을 살리는 많은 아이템들을 얻습니다. 출판기획자로서 이런 아이템을 소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쉽지요. 불편한 몸으로도 땅을 일구는 것은 지식인을 향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이런 몸으로도 농사를 짓고 글을 쓰는데 몸 성한 지식인도 땅을 밟고 땅을 살리는 일에 나서 주어야 한다는 거죠.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천박한 문화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농업과 관련한 좋은 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책에 대한 기대는 한편 독자들에게 대한 이해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말하는 농업관련책의 독자층은 의외로 두터운데,〈녹색평론〉〈작은 것이 아름답다〉〈귀농통문〉등의 전문잡지를 통해 생겨난 고정 독자만 이삼 천이 넘는단다. 독자들의 안목도 높아져 고급한 책을 기다리는 실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이야말로 농업관련책을 담당하는 출판기획자들이 전력을 다할 때다. 최근 그가 요시다 타로의《생태도시 아버나의 탄생》을 맡아 번역한 것도 그러한 독자들의 요구를 알기 때문이다. 곳곳의 텃밭에서 허브가 자라고, 차를 버린 사람들이 자전거로 거리를 달리는 쿠바의 도시 아버나. 생태도시로 탈바꿈해 오랜 기간 이어진 경제난을 극복한 아버나의 사례는 작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웹빙 트렌드에 부합하려는 생태주의 책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다 듭니다. 생태주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그것을 못 살리고 있지요. 트렌드를 쫓아가는 기획은 곤란합니다. 진정한 기획자라면 선도할 줄 알아야 하지요.《야생초 편지》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도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잡초란 없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땅을 일구며 살고 보니 책을 보면 내용이 있는 책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기획의 정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실수란 게 없다면 또 거짓말이겠지만요.”

그는 농업관련책을 기획하는 출판기획자들이라면 기꺼이 현장으로 들어갈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그것이 수월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는지라, 현장에 있



지 못한다면 몇 그루 나무라도 심을 줄 아는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바꾸어 말하면 농업관련책과 땅은 구분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 독자たちの 마음을 끄는 진정성도 책상이 아닌 땅에서 생겨난다. 가볍고 알팍한 책에 실망한 독자가 어찌 땅을 가볍게 보지 않겠는가. 농업관련책 출판기획자의 역할은 그런 까닭에 더욱 소중하다.

“FTA가 대세라 말하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농업 외적인 기능을 계산해 농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직불제밖에 없어요. 논이 갖는 담수량이 소양강 댐의 7배에 이르고 도시사람들을 위한 휴식처로도 농촌은 의미를 갖죠. 그러나 그것도 임시방편일 뿐, 장기적으로 농업을 살리는 길은 귀농자가 늘어야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도시 몇 곳에서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런 도시들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의 밭과 이웃한 곳에는 귀농운동본부와 생활협동조합 소나무의 주말농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그에게 두 마지기 밭도 최선의 작업량일 것이나, 그는 틈틈이 그리로 건너가 작물들을 살펴준다. 그리고 보면 수리산 아래 두 마지기의 땅만 그의 것이 아니다. 생명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땅이라면 모두 그의 것이다.

“소나무 홈페이지에 올렸던 영농일기를 묶어 오는 7월에 낼 생각입니다. ‘생태적 삶을 위한 귀농총서’도 부지런히 출간을 준비하고 있지요. 유기농 벼농사의 대가(大家) 강대인 씨를 취재해 쓴 글은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데 올해 말쯤으로 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기별 음식, 토종종자 채종에 관한 원고작업도 전문필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을 살리는 것은 거름만이 아니다. 땅을 살리는 많은 책들이 우리의 땅을 비옥하게 한다. 안철환 씨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책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준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